

# 영광 백수 해안 산책로 부적격 설계안 당선 논란

## 당선작 실시설계 조감도와 달라 사업비 초과 예산 확보도 불투명

영광군이 추진하는 '백수 해안도로 목재 산책로' 조성 사업이 공모안과 다른 설계안이 당선작으로 확정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영광군은 백수 해안도로를 전국적인 관광명품 해안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총사업비 40억원에 산책로 데크(길이 2.4km)와 전망데크 3개소, 주차장(3천500㎡) 등을 기본 골자로 하는 공모를 실시, C업체의 출품작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교 브릿지, 전망데크 위주로 구성돼 공정성이 떨어졌다는 지적도 있고 있다.

특히 당선작 조감도대로 목재 산책로를 조성할 경우 사업비가 당초 40억을 훨씬 초과한 7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예산 확보마저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공모작 선정을 위한 절차상의 문제점이 거론되고 있다.

공고안에 따르면 응모자가 추가 제안사항 등을 포함시킬 경우 사업부와 상호 의견교환 및 확인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 설계도서가 공고안과 맞지 않는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선작으로 선정돼 발주부서의 사전 검토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선정과정의 공정성을 위해 심사 직전까지 제출된 서류에 대해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검토가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공고안은 당선 후에도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냐 중대한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당선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영광군이 어떻게 결론을 낼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영광 백수 해안도로 목재 산책로 설치사업은 다음달 발주해 2011년 완공될 예정이다.

/영광=조익성기자 ischo@



곡성군 여성자원봉사센터(센터장 이미숙)가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김장김치 담그기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곡성지역 10개 여성단체 회원 200여명은 이 기간 동안 2천여 포기의 김치를 담가 독거노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250세대에 전달할 계획이다. /곡성=김계정기자 kjkim@kwangju.co.kr



## '사랑방 좌담회' 민원해결 척척

화순 능주면 16개 마을 순회 주민 애로 청취

화순군 능주면이 '사랑방 좌담회'를 통해 주민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해결하고 있다.

능주면은 지난 7일부터 26일까지 16개 마을을 순회하며 주민 700여명을 대상으로 '사랑방 좌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 좌담회에서는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 건립을 비롯 화순 생물산업단지 조성, 노인전문병원 설립 등 군정 주요시책사업과 함께 영병정 주변 공원조성 등 능주면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회를 갖고 있다.

특히 현재까지 32건의 주민 건의사항을 접수해 내리 상수도 조 기공급 등 20건은 군에 건의했고, 마을주민 숙원사업 지원 등 12건은 면 자체적으로 처리했다.

윤영재 능주면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좌담회를 개최, 주민들의 애로를 청취해 민정과 군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 화순 쌀 10a당 512kg 전남 최고 생산

화순군이 올해 전남도내에서 10a(300평)당 최고의 쌀 생산 기록을 수립했다.

화순군은 올해 10a당 쌀 512kg을 생산, 전년도 10a당 409kg 보다 25.2%를 더 수확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전국 쌀 생산량은 484만3천t으로 지난해 생산량 440만18천t보다 9.9%가 증가했다.

전남지역의 쌀 생산량은 10a당 484kg으로 전년대비 13.1%가 늘었으며, 이 중에서 화순군이 가장 높은 생산량을 기록했으며 고흥군(504kg)과 영광군(500kg)이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

조기혁 화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화순지역의 단위면적 쌀 생산량이 크게 증가한 것은 기상여건 호조와 우량 품종을 조기 확보하고 병충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등 현장 기술지원과 농업인들의 땀방울 덕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순 지역 대표 브랜드인 '자연속 쌀' 쌀이 첫 출시와 본격적인 시장 공략에 나섰다.

"자연속 쌀" 화순 쌀은 군과 계약재배한 농가에서 생산한 벼만을 엄선해 최신품종 도정과정 등 엄격한 미질 관리 과정을 통해 생산하고 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 '사이버 범죄 꼼짝 마' 담양경찰 '누리캅스' 발대

담양경찰서(서장 조종립)가 지난 21일 경찰서 소회의실에서 주민 12명으로 구성된 '누리캅스' (사이버 명예경찰) 발대식을 가졌다.

'누리캅스'는 누리꾼의 '누리'와 'Cops(경찰)'의 합성어로 건전한 사이버공간 조성을 위해 인터넷상 각종 불법·유해정보 모니터링과 사이버 범죄 예방활동을 벌이게 된다.

/담양=노정훈기자 cjoh17@

## 완도군 내년 예산 사상 최대

올해보다 11% 늘어 3천억원대 확정

완도군이 최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투명한 예산심의 과정을 거쳐 역대 최대 규모인 3천억원대의 새해 예산안을 최종 확정했다.

완도군은 2009년 예산으로 일반회계 2천825억원과 특별회계 331억원 등 전년대비 11%(313억원) 증가한 총 3천156억원을 편성했다.

완도군은 지난달 31일 공청하고 투명한 예산편성을 위해 각계 각종 중립·유해정보 모니터링과 사이버 범죄 예방활동을 벌이게 된다.

또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주민 제안을 심도있게 검토 분석한 후 예산안에 반영해 편성했다.

완도군 재정자립도는 2008년 2회 추경기준 13.3%에 불과하나, 김종식 군수와 공무원들이 혼연일체가 돼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발빠른 대처로 국비를 증액, 확보했다.

완도군은 내년에 ▲생산 기반시설(SOC) ▲해양생물산업 육성 ▲지역균형 발전 ▲해양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지역특화작목 육성 등에 중점 투자하게 된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 함평 국향대전 '함박 웃음'

33만명 다녀가 7억5000여만원 입장 수익

함평군이 '대한민국 대표 가을 명품축제'를 표방하며 마련한 '2008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대박을 터뜨렸다.

함평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23일까지 함평 자연생태공원에서 열린 국향대전에 유료 관광객 18만8천여 명을 비롯한 33만2천여명이 다녀가 7억5천900여만 원의 입장수입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유료 관광객 13만5천여 명과 입장수입 5억3천400여만 원에 비해 각각 40% 이상 증가한 것이다.

또 친환경 농·특산물 1억2천300만 원과 함평 천지한우고기 1억1천700만 원을 비롯해 '나르다' 상품, 먹을거리 장터, 국화 관련 상품 등의 행사 현장 판매액만도 8억여 원에 달했다.

국향대전이 인기를 끈 것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시용 국화 품종 개발과 육종을 통해 새롭고 다양한 품종을 개발, 전시하고 국화동호회들이 국화 작품을 직접 제작하는 등 참신함이 돋보였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아름답게 펼쳐진 드넓은 국화 들녘과 품격 높은 전시행사, 체험 행사로 마련된 행사장에는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려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행사기간 내내 이어졌다.

행사장인 생태공원 입구 오른쪽에 노랑, 빨강, 주황, 분홍 등 형형색색으로 꾸며진 9만 3천㎡ 규모의 '국화 들녘'은 한 폭의 대형 수채화를 그려내며 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400m에 이르는 국화 만리장성, 가로 31m, 높이 8m 규모의 마법의 성, 에펠탑, 피라미드, 거북선, 첨성대 등의 세계 풍물기행 기획작품도 국향대전만의 명품 볼거리로 주목을 받았으며 국화 3천주로 제작된 승려문은 최고의 히트 아이템으로 인기를 끌었다.

/함평=박영진기자 py4079@

## 여수 대표 맛집 16곳 선정

10개 단체 임직원 471명 설문

여수시를 대표하는 음식점 16곳을 선정했다. 이들 음식점에는 '맛집' 표지판과 지정서가 교부된다.

맛집에 선정된 음식점은 다음과 같다. ▲구백식당(서대회) ▲산골식당(봉장어탕·구이) ▲두깨비식당(계장백반) ▲아귀회관(아귀탕·찜) ▲남경전복(전복) ▲산월(삼치회) ▲돌산해물(조개구이) ▲한일관(한정식) ▲남해생선구이(생선구이) ▲미소쌈밥(쌈밥) ▲원조명신낙지(낙지볶음) ▲원조굴구이(굴구이) ▲경도회관(참잠어 샤브샤브) ▲진미꽃계탕(꽃계탕) ▲오죽관(한정식) ▲해금정(일식).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봉/선/동 아이엔리시아**

충남지역 대표기업, 동산회, 새미나, 각종 모임 및 행사(100여명, 10여시간)에

인원: 10명, 20명, 30명, 40명, 50명, 60명, 70명, 80명, 90명, 100명

062)671-1199

**보양음료 속취해소**

아직도, 힘들게 보약을 달여 드십니까?

062-267-7753

011-9612-8700